

미디어와 SNS가 이끈 한국계장 인기

홍콩지사

한국 TV등 미디어 영향으로 계장 인기 상승

- 한국 예능프로그램이나 드라마 속에서 일명 ‘계장 먹방’을 하는 모습이 홍콩에 전파를 타면서 한국 간장계장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홍콩에서 운영하는 한 식당을 직접 찾아가 계장을 맛보거나 슈퍼마켓에서 계장 관련 식품을 찾는 사람도 덩달아서 늘고 있다.
- SNS 문화가 발달한 홍콩에서는 한국 계장의 시식후기를 공유한 영상이 큰 인기를 끌며 간장계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홍콩의 여행 잡지에도 한국의 간장계장 맛집이 소개되어 한국 내 유명 식당은 홍콩 여행객들의 핫플레이스로 통하기도 한다.
- 간장소스와 수산물을 활용한 장류를 즐겨찾는 홍콩인들에게 우리나라 계장은 안성맞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산물과 친숙한 나라, 홍콩

- 바다가 인접한 홍콩은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영향을 받아 수산물을 즐겨먹는 음식문화를 가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게, 새우와 같은 갑각류 요리를 즐겨먹는 편이며, 주로 간장이나 매운 양념을 베이스로 삶거나 튀겨 먹는다.
- 음식점에서는 조개·새우 등의 수산물을 이용한 장류제품을 사용하여 요리에 풍미를 더하거나 육수를 우려내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야미하우스(Yummy House), 이금기(lee kum kee)社의 제품이 시중에 많이 유통되고 있으며 이 두 회사는 굴소스, XO소스 등 대중적인 소스뿐만 아니라 새우장, 해선장 등의 수산물을 활용한 장류제품을 취급하고 있다.



1. 한국 예능 프로그램에서 나온 ‘간장계장 먹방’
2. SNS에서 이슈인 홍콩 인플루언서의 계장 먹방
3. 홍콩 여행 잡지에 소개된 한국 간장계장 맛집
4. yummy house社에서 제조한 계장제품
5. 이금기社에서 제조한 해선장

홍콩에서 판매되고 있는 한국산 게딱지장 제품



게딱지장도 덩달아 인기 누려

- 간장게장에 이어 한국 유통매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게딱지장 식품이 홍콩에서도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홍콩 내 각종 커뮤니티와 SNS상에서 화제가 되며 20~30대 홍콩 젊은이들 사이에서 톡톡히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것이다.
- 1인가구가 많고 바쁘게 하루를 보내는 홍콩 젊은이들에게 게와 관련된 수산물을 원물이 아닌 가공식품으로 간편하게 소비할 수 있다는 점이 인기 요인으로 보인다.
- 현재 SOGO, City Super와 같은 홍콩 프리미엄 유통매장에는 한국산 냉동게장 및 딱지장 같은 수산가공식품의 유통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GTA(Global Trade Atlas)」통계에 따르면 홍콩의 갑각류, 연체동물 및 기타 조제품의 수입액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2017년 기준 약 2억 5천만 달러(약 2,810억 원)를 기록했다.

- 1인 가구 및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면서 간편식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고, 홍콩인들은 평소 갑각류와 같은 수산물 소비를 즐겨하므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수산가공식품 시장은 앞으로 더욱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 홍콩 내 한국산 게장 인지도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홍콩인들의 입맛에 맞는 수산가공식품을 개발하고 타깃군을 세분화하여 다양한 수산가공식품 개발 및 SNS를 활용한 마케팅 등을 진행한다면, 한국의 전통식품인 게장뿐만 아니라 전복장, 새우장, 젓갈류 등 기타 수산가공식품으로의 수출확대 또한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 minikong.tistory.com, www.youtube.com, voniblog.com, www.yum.com.hk, www.hktvmall.com, news.joins.com, www.ydshop.net